

STORY 길 위에서 읽는 한국전쟁 분단이 삼킨 조선 최고 문장가

비운의 월북작가 이태준, 철원 옛 노동당사 옆에 부활 씨앗

윤태욱 답사여행객
kimyto@naver.com



일제 강점기엔 순수문학 지향
해방 후 국가 모델로 소련 선택

북 문단 권력투쟁·질투에 희생
고철 수집, 광부 전전하다 사망

고향 철원에 '컨테이너 박물관'
단편 제목 판 '촌뜨기길'도 만들어

휴전선 일대에서 한국전쟁의 흔적을 찾아다니면서 가장 인상적인 월북자는 철원 태생의 이태준이었다. 철원을 대마리에 있는 두루미평화관 마당에는 그의 탄생 100주년인 2004년에 세운 '상하이태준문학비'가 흉상과 함께 세워져 있다. 문학비 기단에는 이태준의 문학 인생을 요약한 뒤에 이렇게 맺고 있다.

"조국과 고향을 잃어버리고 떠도는 이 위대한 문학자의 자취는 지금도 묘연하다. 이제 그의 나이 100세, 하루속히 통일이 이루어져 이 고향 '경계인'의 문학과 생애가 우리 모두에게 알려지길 바랄 뿐이다"

철원의 노동당사 옆에는 컨테이너 하우스로 만든 소박한 이태준 문학관이 있다. 관장은 철원 이야기를 시로 담아내고 있는 시인 정춘근. 그는 오랫동안 철원에 살면서 이태준을 연구하며 관련 자료들을 모았다. 그는 이태준의 단편소설 '촌뜨기'의 배경을 하나하나 찾아내 촌뜨기길을 만들었다. 촌뜨기길은 이태준이 살던 용담마을에서 노동당사와 관전리로 이어지는 5.4km의 길이다. 최근 철원군은 1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태준 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도면 이태준은 부활했다고 할 수 있다.

이태준은 우리나라 단편소설의 완성자나 조선의 체호프라고 칭할 만큼 훌륭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 그러나 그는 월북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문학사에서 희뿌연 그림자였었다. 이름 석 자 가운데 한 글자는 X나 O나 ■로 복사(伏字)를 당하는 신세였다.

철원군, 정식 문학관 건립 추진

월북 전후 이태준의 행적과 작품을 좇아가면 한 사람의 비극과 우리 문학사가 불구가 되는 상실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다. 1904년 출생한 그는 고아와 다름없는 불행한 소년기를 거쳐 힘들게 문인으로 등단했다. 그는 활발하게 작품을 발표했고 명성은 높아졌다. 이태준은 1933년 이효석·이상·김유정 등과 함께 구인회를 만들고 주도했다. 구인회는 사회주의 참여문학인 카프(KARF) 계열과는 대조되는 순수문학 그룹이었다.

태평양전쟁 이후 일본 제국주의의 강압은 거세졌고 문인들의 목을 억세게 졸랐다. 조선의 식자나 문화예술인 대부분은 '님의 부르심을 바꿀고서'(매일신문 1943년 8월 6일 자 상자 기사의 제목)와 같은, 억지로 짜내는 친일매국에 허덕였다. 이런 시국에 이태준은 1943년 '돌다리'까지 내고는 철원군 안협으로 낙향했다. 펜을 놓고 낚시로 시간을 흘려보냈다.

일제가 패망하고 건국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마주한 이태준은 일제강점기의 문학경향과는 달리 현실 참여로 자세를 전환했다. 해방 직후 조선문학가동맹 부위원장, 민주주의민족전선 선전부장 등 진보진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그 내밀한 속내는 1946년 발표한 '해방전후'에 녹아 있다.

그는 1946년 7월 장편 '불사조' 연재 도중에 8월 조선조선문화협회 시찰단의 일원으로 소련을 방문했다. 두 달간의 시찰을 마치고는 북한에 눌러앉아 '쓰러기행'을 썼다. 소련 기행문은 1947년 5월 서울의 백양당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됐다. '쓰러기행' 이후에도 '혁명절의 모스크바' '위대한 새 중국' 등 두 편의 기행집을 더 냈다.

유입한 한국체육대학 교양과정부 교수는 "세 편의 기행은 이태준이 고심 끝에 건국의 방략으로서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했고, 그 결행을 문장으로 구체화한 정치적, 문학적 전향서"라고 분석했다. 이태준은 소련이 전후복구를 거쳐 일궈낸 선진문물과

함께 조선이나 일본·중국에서 보지 못했던 '제도의 승리'에 자신의 시선을 집중했다. 특히 소련의 축제를, 문화정책을 통해 다양성의 조화를 구현한 선진적 사례로, 소수민족 전통과 평화와 문화가 합치된 것으로 평가했다. 건국의 방향과 체제의 준거로 소련을 받아들인 것이다.

혹자는 이태준이 스탈린 독재의 이면이나 그 한계를 읽어내지 못하고, 훗날 소련의 해체도 예견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기도 한다. 이태준과는 반대로 결론을 내렸던 앙드레 지드의 '소련기행'(1936)에 빗대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앙드레 지드와는 판이한 처지였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체제를 선택하고 구체화해야 하는 시국이었다. 용광로가 쏟아지듯 화급하게 닦여오는 과제에 직면한 식민지 출신의 문인이었다. 이태준과 동시대의 문인들에게, 영·미·불·일의 제국주의를 몸소 겪거나 관찰했던 앙드레 지드와 동일한 결론을 기대하는 것은 허무한 탄식에 지나지 않는다.

월북 이후의 작품은 일제강점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농토'(1948)에서는 억식 부자가 계급적으



1 강원도 철원군 철원을 노동당사 앞의 정춘근 시인. 정 시인은 노동당사 옆에 컨테이너로 이태준 문학관을 만들었다. 2 철원읍 대마리 두루미평화관의 '상하이태준문학비'와 이태준 흉상. 3 정춘근 시인이 소장하고 있는 이태준의 '해방전후' '쓰러기행' '문장강화'.

로 각성해 가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묘사했다. 이태준은 '쓰러기행'에서 상찬했던 '제도의 승리'를 '농토'에서 북한의 토지개혁으로 재현하면서 북한 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노인을 내세워 폭력적인 분단현실을 고심하도록 만들었다. '호랑이 할머니'(1949)는 문명 퇴치 운동과 인민대중의 계도를 집중적으로 묘사했다. '고귀한 사람들'(1951)은 이태준이 함미원조전쟁이란 명분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인 병사를 등장시켰다. 그는 조선과 중국의 국제적 연대, 국가 사이의 혈맹과 개인의 인유애를 연결했다.

'먼지'(1950)는 단일한 민족국가 건설의 꿈이 사라지고 분단이 고착되는 현실을 서사화했다. 이 작품은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인정하면서도 주인공인 한미 선생이란 인물을 문제로 구성함으로써 북한문학이 1950년대 중반까지는 다양한 사유와 목소리가 존재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953년 정전 이후 한국전쟁 실패에 대한 살벌한 책임논쟁 위에 외부적으로는 소련에서 시작된 스탈린 격하운동이 김일성을 압박했다. 이로 인해 격렬한 권력투쟁이 벌어지면서 다양한 사유는 자리를 잃었고, 이태준은 북한의 제도권 문학에서 배탈로 밀려나고 말았다. 북한 문학의 변화 속에서 가라앉은 이태준의 처지를 보여주는 작품이 되고 말았다.

카프 출신의 한설야와 이기영은 이태준 작품을 평가절하하고 비판했다.

그들은 이태준의 월북 이전에 이미 북한 문단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한설야는 1945년 북조선 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시작해서 교육문화상에 이르는 북한 문학권력의 정점이였다. 이기영은 1946년 2월에 월북하여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을 이끌면서 북한문예계의 중심인물로 활동했다. 이런 인물들이 이태준을 비판한 것은 문학 토론이 아니라 정치적 박해였다. 한설야와 이기영은 이태준의 저격수였고 기소검사였고 판사였고 간수였다.

재처럼 사라진 귀한 역사 되살려야

이들은 이태준의 전쟁 이전의 작품들을 사상이 약하고 부르주아 반동이 잔존한다고 비판했다. 월북 이후의 작품도 그대로 두지 않았다. 빨치산 대원을 냉혈동물로 묘사했다든가, 미국의 풍요를 노래했다면서 자연주의적 퇴폐와 반동적 태도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광복 후 북한의 최고의 작품이라던 '호랑이 할머니'마저 문명퇴치사업이 별 성과가 없는 것으로 묘사했다고 비난하는 정도였다. 이들이 이태준을 비판한 것은 그들의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젊은 시절부터 쌓여온 조선 최고의 문장가에 대한 질투가 아니었을까. 권력투쟁에 질투가 가미된 비판은 총알이 되어 이태준을 쓰러뜨렸고 그는 결국 북한의 문단에서 퇴출됐다.

이태준은 1956년 함흥노동자신문의 교정원으로 추방당했고, 다시 함흥콘크리트블록공장의 파철수집 노동자로 배치되어 집필조차 박탈당했다. 1964년 조선노동당 중앙당 문화부 창작실 전속작가로 복귀했으나 그곳에서 이태준의 문장이 되살아나올 수도, 권력을 만족하게 할 수도 없었다. 몇 년 후 강

원도 장동탄광 노동자지부로 추방되었고, 그 곳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분명하지는 않다.

이태준만이 아니었다. 전쟁 이전에 월북한 사람들 가운데 학자나 문화예술가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의 월북 이후 인생 후반은 대부분 좋지 않았다. 극작가 신고송과 이서향, 만담가 신불출, 연출가 안영일, 연극배우 배용, 극작가 추민 등은 북고주의니 종파분자니 하는 명목으로 숙청당했다. 혁명은 인민을 끌어당겨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이지만, 권력을 잡는 순간 혁명은 사라지고 권력만 고개를 뺏빳하게 쳐들곤 한다. 이태준은 이런 냉혹한 권력에 추돌당한 것이다.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이상과 열정은 그의 문장과 함께 사라졌다. 그래도 철원에서 문학의 역사로 부활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에서는 참으로 잘한 일이다. 한국전쟁의 책임은 전범을 특정하여 그들에게 물을 일이고, 타버린 재처럼 흩날려버린, 귀하고 아쉬운 것들은 대한민국이 꾸준히 챙겨갈 일이다. 건져 낼 역사가 이태준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윤태욱 지난 15년 동안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역사와 자연과 문화를 찾아다니고 있다. 최근 2년은 한국전쟁을 주제로 한 휴전선 지역, 바다의 역사를 주제로 한 서해·남해·제주 지역을 답사했다. 올해에는 바다의 역사 해외 여정을 시작했다. 여행하면서 '변방의 인문학' '중국에서 만나는 한국독립운동사' '길 위에서 읽는 중국현대사 대장정' '중국 민가 기행' '중국식객' 등을 펴냈다. <https://blog.naver.com/kimyto>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